

향기로운 예물

기업 085-056206-04-111(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주정, 주일, 정기 링크(이르/링크종류 예 홍익등주정, 홍익등성탄)

♠ **심일조현금** 기원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령교회)

김기택(배숙자) 김병욱(미영숙) 김승석(임영덕) 김준화 박승현 명성태(차옥자) 석애지(진희부)
송승달 안금자 이상희 이종문 이철규(곽정순) 이한웅(김순옥) 이하걸 채민기(장은주) 채명엽
최성걸(이미향) 최성현 최정규(김미영)

♠ **선교헌금** 기원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령교회)

김은미 김명욱(이영숙) 김순옥(이현웅) 김춘화 김태한 박권재(송명숙) 방현욱(신영신)
배경철(김순화) 안금자 이미자 이종문 임영득(김순석) 채만기(장은주) 채명열 베드로님전도회

♠ **감사헌금** 기원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 이필재 박정순 김경연(순정아) 김영숙(이영숙) 김정연 박정자 김춘희 박진재(송영숙) 박금옥
박복순 박순자 박승현 박종삼(이영원) 방복순 배경원(김순희) 백성원(안지영) 서재희(김현구) 송다혜
송복현 송희자(김현자) 심승옥 안금자 염영래(한세록) 유은자 이경순(배세영) 이기자 이영희 이미자
이미향 이종은 이희숙 이효자 이희순 임영숙 전계자 전순복 정기성 차옥자 채명철 최봉순(서진희)
최성현 바울남전도회 루디아전도회

♠ 일천번재 현금

이진우 김은미 김민서 김민준 김이리진 김이민 김준구 민우희 박민서 박서필 박순지 박승현 박영호
박정훈 방복관 서로이 서로하 송재현 심준욱 양영욱 양일석 이강우 이경지 이노을 이미자 이상미
이성호 이소은 이송혜 이이훈 임유영 염서연 정양학 주성민 최영진 최선미 최희자 하세현 홍유정
홍유민 홍유민 무명

**♠ 원자핵
트렌드**

주간 성경연구

17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열왕기상 11장 1 - 13절		
월요일	열왕기상 11장 14 - 25절	목요일	열왕기상 12장 12 - 20절
화요일	열왕기상 11장 26 - 43절	금요일	열왕기상 12장 21 - 33절
수요일	열왕기상 12장 1 - 11절	토요일	열왕기상 13장 1 - 10절

원로장으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호
시무장으로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박종삼 최성열
은퇴장으로	방현옥 정명원 문명원 천세혁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윤희진
	전 도 사 이팔례
	교육전도사 김선희 김운주 최유경
찬 영 대	지 위 자 할 려 루 마 : 김한나 시 온 : 권혜정
	반주자 오르간 상해윤
	피아노 지여빈 김민지 김미희 이상희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 리 스톱 이수경 권혜정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수 리 남 : 안석열 이성욱 미 국 : 김다니엘 미 국 : 최옥희
	미 접 트 : 김진숙 A X 국 : 김해철 A X 국 : 이복희 모 잡 비 크 : 홀두표 강순영
선 교 사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미 국 : 김홍기
	미 국 : 박경환 이순면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줄거운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동포시탈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지평위원회.

2024.04.21.

인생의 풍량을 만났습니까?

마가복음 4장 36-41절

설교: 이진우 목사

성도는 시련의 한복판에서 낙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부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다다르자 거친 바람과 파도가 배를 덮었습니다. 본문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라는 헬라어는 “리얼리티 메탈레 아네무” 인데 “광풍, 큰 바람” 이란 뜻입니다. 누가도 이와 같은 표현을 썼으나 태어난 “세이스모스 메가스” 즉, “큰 지진” 이라는 표현을 써서 큰 광풍이 일어나고 난 당황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배가 바다에서 큰 지진을 만난 듯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풍랑을 많이 겪어 봤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로 어떻게든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며 우리들께 해 된 것을 돌보시니 내니하시니까?” 제자들의 이 요청은 거친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고 곧히 잠만 주무시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난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보려고 하다 뜻대로 되지 않아 두려워하거되다 예수님께 좀 더 일찍 도우심을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든 시 일어나다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배를 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을 떠나 이 풍랑 부는 바다에 그들을 버려두지도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제자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 제자들과 함께하였던 예수님은 때로 그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역경에 눈을 감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예수님을 원망하기보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을 풍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인생의 풍랑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큰바람, 광풍의 시련에서 건져 주시고 잔잔한 항구에 닿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풍량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풍랑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는 헬리어는 “시오파, 폐회모소” 인데, 전자는 현재 명령형을, 후자는 현재 완료 명령형을 사용하심으로 절대적이며, 불가항력적 권세로 명령하심을 보여줍니다. 바람과 바다에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심은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시며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천히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 전에도 키신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놀라워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들의 작은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기 **“아직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찌하여 아직 믿음이 없느냐?”** 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내내 배에 함께 있지 않으셨을지라도, 예수님은 폭풍 속을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고난의 풍랑을 만나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련과 역경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해결하는 데는 돈도 물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인생의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찾아온 고난 속에서 당황하며 힘겨워합니다. 그때 문제만을 바라보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문제만을 보는 외적인 눈에서, 연약하고 믿음 없는 내 자신을 보는 내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밝아짐으로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탁월한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 앞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SINCE 1975

No. 50 - 17

2024. 04. 28.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로마서 15장 13절)

목표: 1. 진리 파수 2. 천국 일꾼 양성 3. 민족 복음화 4. 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 임 목 사 Senior Pastor	이 Yee,	진 우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원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에배

[1부] 오전 7시	사회: 윤 영 준 장 로
[2부] 오전 10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묵 도	할렐루아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348(통388)장 (Praise) 마귀들과 싸울지라
대 표 기 도	[1부]오동호집사 (Prayer) [2부]배경철장로 [3부]윤영준장로
성 경 봉 독	마가복음 5장 1~20절[신약 p.60] 인 도 자 (Scripture)
찬 양	[1,2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갈 이 (Anthem) [3부] 곤한 내 영혼 편이 쉽 곳과(정진성) 할렐루아찬양대
설 교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신 예수님 이 진 우 목 사 (Sermon)
헌 금 봉 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갈 이 (Offering)
새 신 자 환 영	다 갈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352(통390)장 다 갈 이 (Praise) 십자가 군병들이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갈 이 (Marching on Prase)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입니다.
※현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예배시 꼭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오후 3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하나님께 찬양을 다 갈 이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 양	다 갈 이
기 도	오 동 호 집 사
찬 양	브 라 카 찬 양 단
광 고	인 도 자
성 경 봉 독	잠언 8장 12~19절(구약 p.915) 인 도 자
설 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이 진 우 목 사
찬 양	다 갈 이
축 도	이 진 우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다 갈 이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1장 9~14절[신약 P.141] 인 도 자
설 교	구원자 예수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0:00 본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0:00 로뎀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1:30 로뎀나무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

교회소식

◎ 광고

- [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
오늘(24일) 찬양예배는 “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로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 [교회 설립 49주년 설립기념 주일 및 어린이 주일]
다음 주(5/5일)은 교회설립 49주년 기념 주일 및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3부 예배는 교회설립 49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 [초원/목장 연합예배]
다음 주일(5/5일) 찬양예배는 5월 초원/목장 연합예배로 합니다. 3시에 본당에서 모이신 후 초원별로 이동하여 예배를 하오니 2시 50분까지 본당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상반기 40일 연속 금식기도]
5월 17일 성령강림주일까지 40일 연속 금식기도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복을, 주린 영혼에게는 채워주심을” (시107:9)이란 주제로 진행합니다(순서지를 참고하셔서 자신의 순서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달의 책]
4월의 책은 “예배”(규장/A.W. 토저)입니다. **게시판을 참고하시며 교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교회 신청시 9,000원(정가 10,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4,5월 교회 행사 안내

4월 10일(수)-5월19일(주일)	2024년 상반기 40일 연속 금식기도
28일(주일)	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
5월 5일(주일)	설립49주년 기념 주일 및 어린이 주일
12일(주일)	아버지 주일
13일(월)-17일(금)	다락방 기도회
18일(주일)	성령강림주일/스승의 주일/교육위원회 헌신예배
23일(목)	교구신상기도회
28일(주일)	부부주일/브라카와 함께하는 찬양예배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 초원/목장 연합예배 찬양예배/본당

◎ 담임목사 동정

- 서울남노회 미래자립위원회 28일(주일) 오후 5시 30분 서울남노회 사무실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종 식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정영근 청년	오예담 학생	박종삼 장로, 이명원 권사	사랑1 고척11	에스더 여전도회
다음주	최가훈 장로		교회설립49주년	사랑2 개봉2 개봉3	루디아 여전도회

5월	1 부		2 부	3 부	찬 양 예 배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기도	사회/인도	기 도
1주(5일)	최가훈 장로	유현호 집사	임만순 장로	최가훈 장로	초원/목장연합예배	
2주(12일)	김병을 장로	장윤주 집사	박권재 장로	김병을 장로	최가훈 장로	장윤주 집사
3주(19일)	최성걸 장로	홍정훈 집사	최성현 장로	최성걸 장로	최성걸 장로	김종진 집사
4주(26일)	배경철 장로	김종진 집사	윤영준 장로	배경철 장로	담임목사님	홍정훈 집사